

## ‘미안하다. 사망’, 동광기연 강제퇴직자 세상 떠나

18일 유족, 문자 받고 발견. 그날 장례 치라...금속노조 인천지부 · 동광기연지회, 동광 자본의 타살 규정

인천 동광기연 불법 구조조정 과정에서 결국 희생자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동광기연 강제퇴직자 김 아무개(53) 씨가 부평에 있는 자기 집에서 목매 자살한 현장을 유족이 지난 9월 18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이 희망퇴직했던 동료들은 “김 아무개 씨가 2016년 8월 말 희망퇴직 이후 실업자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지만 희망퇴직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후회스럽다’ 라면서 힘들어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

김 씨의 형이 ‘미안하다. 사망’이라는 유서와 같은 문자를 받은 뒤 급히 상경해 김 씨의 집에 경찰과 함께 들어가 김 씨를 발견했다.

김 아무개 씨는 동광기연에서 21년 동안 일하며 한국지엠 LOC(물류 최적화 센터) 서열장에서 파견근

무를 해왔다. 동광기연은 LOC에서 일하던 노동자 세 명에게 “회사가 어렵다. 희망이 없다,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김 아무개 씨 등 서열장 노동자 세 명은 동광기연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2016년 8월 희망퇴직원에 서명했다.

연지회는 김 씨의 죽음이 노동자 삶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과 사회의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지부와 지회는 동광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부와 동광기

## “대만 E-ink · 하이디스는 지회 고용보장 요구 받아라”

20일, 하이디스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사측, 교섭 불참, 요구안 거부 등 불성실교섭 일관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가 8개월 만에 노사교섭을 재개했지만, 하이디스와 대만 E-ink가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교섭이 난항에 빠졌다. 지회는 “회사가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며 기본 신뢰마저 저버리고 있다” 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회는 9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대만 E-ink와 하이디스 사측의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하이디스지회 기자회견’ 을 열어 사측에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지난해 12월 교섭 중단 이후 8월 23일부터 하이디스, E-ink와 교섭을 재개했다. E-ink가 9월 14일 6차 교섭에 불참하고, 하이디스가 지회의 고용보장 요구안에 대해 ‘협

상안으로 부적절하다’ 는 견해를 밝히는 등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이디스와 E-ink가 지회 요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용보장 방안을 찾기 위한 실질 행동을 보이라” 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 두 번째 위원장 직선제 선거 시작

18일, 9기 임원선거 공고, 11월 30일부터 투표...현장투표 기본, 모바일·ARS 투표 등 투표 참여 방법 늘려

“조합원의 한 표가 민주노총의 변화입니다.”

민주노총이 두 번째 위원장 직선제 선거를 맞아 모바일 투표와 이메일 투표를 신설하고, ARS 투표를 확대하는 등 조합원 투표 참여 확대에 나선다. 2014년 첫 직선제 선거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차이는 조합원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투표 방법 도입이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 아래 선관위)는 2014년 직선제 선거보다 ARS 투표 비중을 크게 높이고, 모바일 투표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2인 이하 사업장은 현장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고, 20인 미만 소규모 투표구는 ARS, 모바일 투표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현장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에



게 ARS 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허용한다. 2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한 인근 투표구와 통폐합을 추진하되, 통폐합할 수 없는 때에만 ARS 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허용한다. 소요 비용은 노조 사업비로 편성해 지급한다.

ARS 투표는 선관위가 발송한 ARS 안내에 따라 기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모바일 투표는 선관위가 발송한 문자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해 기표하면 된다. ARS와 문자는 각각 5회 발송하되 선관위 결정에 따라 추가 발송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한 이메일 투표는 해외 근무 조합원만 할 수 있다. 선관위가 발송한 이메일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한 후 기표하면 투표할 수 있다. 2014년 직선제 선거에서 회수율이 10%에 불과했던 우편 투표는 구속, 수감 중인 조합원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과 함께 16개 지역본부장(수석본부장)-사무처장을 뽑는다. 각 후보는 11월 6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다. 11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1차 투표를 진행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2위 득표자(후보가 두 조면 최다득표자)를 대상으로 12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결선투표를 벌인다.

## “1987년에 비취 민주노조의 내일을 보자”

민주노총 인천본부, 부산본부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념사업 활발...기념식, 집체극, 백서발간 등 전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가 기념사업을 펼친다. 민주노조운동 30년의 기록을 되짚어 앞으로 과제를 조망하는 취지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창곤, 아래 인천본부)는 9월 19일부터 열흘 동안 ‘노동자 인간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책자 발간, 대중강

좌, 좌담회, 기념식 등 다채로운 기획을 준비했다.

인천본부는 9월 21일 ‘87년 노동자 대투쟁 기억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형진(87년 당시 진도), 문상기(87년 당시 인천제철), 김성갑(87년 당시 대우자동차), 한선주(87년 당시 태평양 물산) 동지와 엄창섭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인천권역 의장

이 패널로 참석하는 좌담회를 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하, 아래 부산본부) 역시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본부는 오는 9월 21일 부산본부 대강당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념 기획 강연을 연다. 부산본부는 9월 22일 ‘응답하라 1987’ 교양문화 집체극을 대규모로 열 예정이다.

# “아빠는 지는데 왜 계속 싸우는 거야?”

영화 ‘안녕히어로’ : 현우와 쌍용차 해고자 아빠이야기



“아빠는 지는데 왜 계속 싸우는 거야?” 현우는 아빠에게 묻고 싶다. 14살 현우는 누구보다 아빠를 좋아하고 따르지만, 때론 답답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현우는 아빠를 통해 세상과 마주한다. 세상 속의 아빠에 대해,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부당함에 맞서는 사람들에 대해 깨닫는다.

2009년 77일 정리해고-구조조정 투쟁에서 해고를 당하고, 6년 동안 복직투쟁, 그리고 승리. ‘안녕 히어로(GOODBYE MY HERO)’ 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첫 번째 개봉작이다.

자신의 삶의 조건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당연한 듯 여겨지는 지금, 자신의 삶의 조건을 만드는 싸움에 나선 이들이 ‘힘없고 안타까운 영웅’ 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인정받는 세상을 꿈꾼다. 우리는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작은 용기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

2017년 가장 주목해야 할 올해의 다큐멘터리. ‘열정 같은 소리’ 가 만연한 지금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

한 영화. 세상의 모든 아빠와 아들을 보듬어줄 기적 같은 영화. 사장님과 꼭 함께 보길 추천한다.

▲제목 안녕히어로 (GoodByeMyHero) ▲감독 한영희 ▲출연 소년 현우, 아빠 정운 ▲제작 연분홍치마 ▲배급 시네마달 ▲상영 시간 109분 ▲개봉일 2017년 9월 7일 ▲상영내역 제8회 DMZ 국제다큐영화제, 제17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제22회 인디포럼, 제22회 서울인권영화제